

## 2013년 칠레 대선 전망

임수진

칠레 대선경쟁에는 주자가 한 명 밖에 없어 보인다. 다른 군소정당 후보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한자리수 지지율에 불과하고, 우파연합 후보마저 낮은 지지를 받으면서 마치 중도좌파연합(Nueva Mayoría)의 미첼 바첼레트 후보만이 대선경쟁에 뛰어든 것 같다. 바첼레트는 현재 모든 여론 조사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차 투표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보였다. 현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중반도 되지 않은 시기에 20%대까지 추락했고 레임덕이 지속되고 있어서 여권은 대선을 세 달 앞둔 지금에서야 겨우 후보를 선출할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은 UN여성기구 대표로 있던 바첼레트가 칠레로 돌아와주길 원했고, 조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대선후보 경선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중도좌파연합의 후보로 선출되었다. 2002년 바람을 일으키며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했던 미첼 바첼레트는 칠레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서 84%의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궁을 떠나던 날 국민들은 외쳤다. “미첼, 2013년 다시 만나요.” 그녀는 다시 대통령 후보로 돌아왔다. 그리고 2013년 11월 17일 선거에서 국민들의 바람대로 바첼레트는 집권 2기를 열 수 있을까?

집권 우파연합은 선거를 세 달 앞둔 8월 12일에서야 후보자를 확정했



지지자들과 함께 한 미첼 바첼레트 중도좌파연합 대통령 후보

다. 집권 초기 피네라 대통령은 산호세 광산에 매몰된 33인의 광부들을 구출하며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그 현장의 주역이었던 라우렌세 골보르네 장관은 피네라 정부 임기 내내 여권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였다. 그러나 골보르네 장관이 경선 두 달 전 과거 사업가 시절의 개인비리와 조세피난처 계좌 소유를 이유로 경선을 포기하면서 독립민주연합당의 파블로 룡게이라와 국가혁신당의 안드레스 아야만드의 경선으로 압축되었다. 당시 아야만드의 선출이 유력했으나, 룡게이라는 단 두 달 만에 산티아고 부촌에서 몰표를 받으며 아야만드를 누르고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경선 직후 룡게이라마저 아들의 암투병과 자신의 우울증을 이유로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우파연합은 또 한 번의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 이에 우파연합은 독립민주연합 소속의 노동부 장관 에벨린 마테이를 후보로 지명했으나 국가혁신당이 이에 반발하여 8월 19일 경선으로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합의했고, 조금 이른 지난 12일 국가혁신당이 당내 투표로 마테이 후보 추대에 찬성함으로써 후보를 단일화했다. 이로써 칠레 대선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과 여성이 대결하게 되었다.

우파연합에서 누가 후보자로 나오던 바첼레트의 당선 가능성은 높다. 여론조사는 물론 지난 6월 30일 치러진 대선 후보 선정을 위한 공개 예비 선거 결과를 보면 분명해진다. 칠레 대선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이번 공개 예비 선거에는 1,300만 전체 유권자중 약 25%인 300만이 넘는 유권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니 올 연말 대선을 미리 짐쳐볼 수 있는 예비 선거라고 볼 수 있다. 결과를 보면, 우파연합 경선에 참여한 유권자는 87만 명이고, 중도좌파연합에는 214만 명이 투표하여 경선에 참여한 전체 유권자의 71%가 중도좌파연합에 투표하였다.<sup>1)</sup> 그만큼 현재 우파연합에 대한 지지율이 낮고, 적극적으로 투표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더욱이 우파연합의 룡게이라는 단 10개의 선거구, 즉 산티아고의 몇몇 부촌에서만 승리함으로써 칠레 국민의 극소수만을 대변한다는 이미지가 고정되었고, 우파연합의 후보 마테이 역시 같은 정당 소속이기에 이러한 현상은 실제 투표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첼레트는 산티아고 부촌에서는 낮은 득표율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율을 보이며 73.5%의 지지로 선출되었다. 대선 투표율을 60%로 가정하고, 경선에 참여한 유권자의 표심이 그대로 연합의 단일후보로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중도좌파연합은 경선의 두 배, 우파연합은 다섯 배를 득표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한 중도좌파연합에 비해 우파연합은 일부 부촌에 표가 집중되었기에 표의 확장성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게 됐다.

둘째, 올해 대선부터 강제투표제에서 자율투표제로 전환되면서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칠레는 선거인 등록을 했고, 등록된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을 경우 200달러 내외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제투표 국가였다. 그러나 실제 선거 등록률은 라틴아메리카에서

1) 칠레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eleccionesrvel.cl/EleccionesPrimarias/vistaPais>



우파연합의 후보 에벨린 마테이(Evelyn Matthei) 노동부 장관

가장 낮은 69.7%로, 선거 등록률을 감안했을 때 지난 2009년 대선 투표율은 57.6%에 불과했다.<sup>2)</sup> 특히 18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의 선거 등록률은 25%에 지나지 않았는데, 올해 선거인명부를 전산화하면서 선거등록제를 폐지하고 자율 투표제를 도입하였다.<sup>3)</sup> 이로써 830만 유권자는 1,300만으로 늘었고, 그동안 투표하지 않았던 청년층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은 우파연합보다 중도좌파연합에 우호적이다. 또 피네라 대통령 임기 중후반 내내 국내 정치의 주요 쟁점인 교육 투쟁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이 무상교육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바첼레트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 대학생들의 투표참여가 늘어나 바첼레트의 득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 Juan Pablo Luna, "Jóvenes, inscripción automática y voto voluntario: ¿El tipo de reforma que debemos evitar?" *Revista de Ciencia Política*, Año 6/N. 46/septiembre 2011, p. 3-4.

3) Matías Martínez, Humberto Santos y Gregory Elacqua, "Los Nuevos Votantes Chilenos: Efectos de la Inscripción Automática y Voto Voluntario." *Claves de Políticas Públicas*, Julio 2012, Núm 10, p. 3-4.

셋째, 여권의 낮은 지지율을 보면 우파 성향의 유권자가 결집하더라도 중도 성향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피네라 대통령 임기 중반 교육의 질 개선과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학생시위가 일어나자 대통령은 대화 대신 강경대응을 선택했다. 학생운동에 노조, 교강사, 일반 시민이 연대하면서 그만큼 수업거부와 파업도 잦아졌고, 무상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대통령은 무력 진압 외에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우파연합마저 경찰 보호법에 찬성하면서 학생들과 대화를 거부했다. 대통령과 우파연합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대통령의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은 곤두박질쳤고, 조기 레임덕에 빠져 30% 안팎의 지지율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또 높은 고용율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가 혼란에 빠지면서 국민들은 여권 후보에 등을 돌리고 있다. 우파연합에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이전 후보 룡게이라의 핵심 공약, 즉 중산층의 대통령이라는 공약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산층의 폭이 좁고, 소득 불평등이 심한 칠레에서, 무당파 유권자들의 표심이 얼마나 우파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선거 프레임을 보면 이번 대선은 여성 후보 간의 대결 구도이다. 칠의 여인 에벨린 마테이와 여성적인 리더 미첼 바첼레트 간의 경쟁이 예상된다. 이 두 여성은 공군 장성의 딸로 태어나 북부의 공군 캠프에서 친자매처럼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내기도 했지만, 1973년 쿠데타 이후의 관계는 그야말로 악연이었다. 에벨린의 아버지 마테이 장군은 피노체트에 충성하며 군사독재의 중심에 있었고, 아옌데에 충성했던 미첼의 아버지 바첼레트 장군은 피노체트가 국가반역죄로 처형한 인물이다. 또 에벨린이 아버지 덕에 편안한 청년 시절을 보내고 국회의원을 지낼 때, 미첼은 고문을 당했고, 독일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으며, 정치 인생도 순탄치 않았다. 이처럼 두 여성은 개인적인 인생 역정뿐만 아니라 정치적이념, 리더십에서도 평행선에 서 있다. 문제는 우파연합이 중도좌파연합



칠레 국기

을 이길 후보를 선출한 것이 아니라 바첼레트에 대항할 후보를 선출했다는 것이다. 또 독재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결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이념 경쟁도 치열해졌다. 에벨린 마테이가 여권의 후보가 되자 죽은 피노체트에 대한 과거 인권유린과 부정부패가 다시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즉 좌우 이념 갈등이 부각되면서 이번 대선은 아옌데와 피노체트에 대한 평가의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선거는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 선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파연합은 과거 독재의 후광을 입은 여성후보를 선출했다. 마테이는 바첼레트의 대척점에 있는 여성이다. 바첼레트가 경선 후보자 시절부터 자신의 재임 중 업적과 구체적인 대선 공약을 얘기할 때 마테이는 선거 캠프도 꾸리지 못한 채 정책 대신 좌파가 우파를 공격한다는 이념 대결의 프레임에 빠져있다. 우파연합은 여성 후보가 아니라 바첼레트를 뛰어넘는 경쟁력 있는 후

보를 선출해야만 했다.

미첼 바첼레트는 지난 임기동안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전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또 지난 대통령 임기 말 있었던 쓰나미에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쓰나미 피해를 입은 디 차토 지역의 경선에서 85.16%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로써 자신의 정치 생명마저 위태롭게 했던 쓰나미 논란에서도 자유롭게 났다.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로 충분히 검증받았고, 대통령으로서, 또 UN여성기구 대표로서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았다. 지금의 추세라면 중도좌파연합의 목표처럼 1차 투표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선거를 세 달 앞두고도 선거캠프도 구성하지 못하고, 선거공약조차 없는 우파연합에게 이번 선거는 힘든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우파 지지 세력이 있고, 호아킨 라빈 같은 거물급 정치인이 선대본부장으로 마테이를 돕고 있긴 하지만 대선 레이스의 중반에 이른 지금 우파연합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 그들의 생각처럼 여성과 여성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준비된 대통령과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프레임에 빠지고 만 것이다. 그러나 우파연합이 바첼레트 집권 기간의 실정을 공격할 것이 분명하다.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이기에 남은 기간 어떤 변수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우파연합이 지금처럼 방향을 잃고 표류한다면, 바첼레트의 지지를 추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임수진 - 경희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연구원